

정리하고 분쇄!  
비정규직 철폐!  
야권연대 반대!  
노동자혁명당 건설!

# 혁명

## 총선특보 4호

발행일 : 2012년 3월 24일  
발행처 :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3가 70번지 3층  
블로그 : blog.jinbo.net/wrp  
E-mail : wrp@jinbo.net

## 기만적인 야권연대를 박차고 '정리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투쟁으로 쟁취하자!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한 현재 총선 판도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디도스, 청와대 고위 인사들의 금품 수수, 박희태의 돈봉투 살포 등으로 '선거는 끝났다'며 참패의 공포에 떨고 있던 한나라당(새누리당)이 다시 회생하고 있는 반면 다 이긴 선거라며 득의만만했던 민주당은 이제 제1당 과반의석은커녕 지지율이 한 순간에 급락하면서 총선 전망에 비상등이 켜졌다. 반MB 심판론의 약발이 다 한 것인가?

민주당은 반MB '대세'에 기대 200석 확보까지 자신했지만, 실은 이명박 정권의 실정과 한나라당의 비리 부패로 인한 반사이익을 잠시 누렸던 것일 뿐이다. 반MB 깃발만 치켜들면 심판론에 힘입어 선거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겼던 것이 지금 무언가 구도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가 재벌을 비롯한 1% 자본 독재에 대한 분노로 번져가고 있다. 그러다보니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그동안 재벌의 친구들이었던 이 당들이 앞 다투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핵심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표를 모으려하고 있다.

###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그러나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공약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들을 만족시키지는 모르지만 노동자 민중들의 분노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다.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재벌들의 불공정 거래", "문어발식 경영과 부당 내부거래", "빵집, 마트 등 골목상권 진출, 유통 독점" 등등과 같은 "시장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재벌의 '폐해'를 시정하겠다는 공약이다. 자본가 정당들답게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보다 건설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 공약이고 재벌개혁 공약이다. 여기서는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아무 차이가 없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원 위치로 돌아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진보정당들도 똑같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공약을 내걸고 자본가 정당들을 따라하기에 여념이 없다. 노동자 민중들의 분노가 의식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향해 표출되도록 이끌어 줄 "재벌 몰

수·국유화" 강령을 극구 거부한다. 재벌들이 쌓아놓고 있는 수백조원의 사내유보금만 몰수해도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하고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대중들의 상식이 되어 있는데 말이다.

### '정리하고 요건 강화?' '비정규직 차별 축소'?

또한 "정리하고제 철폐", "비정규직 철폐" 요구를 끝까지 회피하고 '정리하고 요건 강화'와 '비정규직 차별 축소'로 빠져나가는 것에서도 똑같이 자본가 정당들을 따라하고 있다. 여야 자본가 정당들이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에 놀라 비정규직 특별법, 비정규직 보호대책 등 눈속임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정당이나 자본가정당이나 별 차이가 없어져버린 것이다. "정리하고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외치면서 자발적인 연대의 정신으로 노동자 민중들이 희망버스를 타고 희망텐트를 치고 희망뚜벅이를 내딛고 희망광장을 펼쳐도 이들 진보정당들은 끝내 정리하고제, 비정규직 철폐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자본가 정당과 손잡는 야권연대에 목을 매고서 오직 야권단일화를 통한 의석 확보만이 살 길이라며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과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를 야권연대에 종속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야권연대 총파업'인가, '정리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쟁취 총파업'인가?

이런 공약과 노선을 놓고 볼 때 총선 대신에서 승리하여 민주대연합 공동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자본주의 경제위기 속에서 노동자 민중들의 고통은 아무것도 해결될 게 없다. 아니, 오히려 자본가 정당과의 계급협조를 위해 노동자 투쟁의 손발만 묶이는 상황이 되고 있다. 실제로 이미 이러한 반MB 야권연대 전략 구도 속에서 야4당 중재단을 만들어 현자비정규직 25일간 점거투쟁을 비롯해 쌍용차, 금호타이어, KEC, 한진중공업 등 노동자 투쟁들을 주저앉히고 깨뜨려 오지 않았던가.



이정의 논란은 집권하여 자본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야권연대 세력들의 자본가 정당들 따라하기에 일면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노동자계급은 이러한 기만적인 야권연대를 박차고 스스로의 직접행동으로 '정리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쟁취해야 한다. 하반기 총파업은 법 개정 투쟁이 아니라 이러한 세상 쟁취를 위한 실질적인 투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총파업이 야권연대를 밀어주기 위한 형식적인 시위성 파업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리하고제 철폐", "비정규직 철폐"로부터 더 나아가 '의제'를 확장해야 한다. 투쟁의 요구를 제한하지 말고 정세가 제기하는 모든 투쟁 과제를 떠안고 요구를 확대해야 한다. '정리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쟁취를 위해 다음과 같은 <2012년 노동자계급 총단결투쟁 10대 요구>를 내걸고 반MB 반새누리당을 넘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나아가자! **혁명**

### 2012년 노동자계급 총단결투쟁 10대 요구

- △ 일체의 해고 금지! 정리하고제 폐지!
- △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보장!
- △ 노동조건 저하 없는 1일6시간/주30시간 노동으로 실업 해식 야간노동 철폐!
- △ 물가폭등에 따른 생활임금 보장! 무상주거! 대학등록금 폐지!
- △ 집회·시위·결사·표현의 자유! 완전한 파업권 쟁취! 노동약법 철폐!
- △ 한미FTA 반대! 민영화 반대! 기간산업(재)국유화!
- △ 제국주의 전쟁 반대! 자본가 국가의 군사주의 반대!
- △ 재벌 몰수 국유화! 노동자통제!
- △ 은행 국유화!
- △ 노동자 통제 하에 단일 국영은행으로 통합!
- △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라!
- △ 민주대연합이 아니라 노동자정부!

### 희망광장에 노동자계급의 정치가 필요하다



희망버스, 희망텐트, 희망발걸음, 희망광장...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힘들기 때문에 '희망'을 내걸고 투쟁하고 있다.

오늘도 시청광장에 쌍용자동차, 재능교육, 유성기업, KEC, 콜트-콜텍, 코오롱 정투위, 기아차해복투, 현대차 비정규직, 대우차비정규직, 기륭전자 등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정리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99% 희망광장'의 기치 아래 아직은 요원하게만 보이는 희망을 찾아 앞장서 분투하고 있다.



희망이 희망으로만 남아 있지 않고 우리들의 투쟁으로 희망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요원하게 보이는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어떻게 하면 그리 될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미 우리 앞에는 이런 저런 길을 제시하며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2012년 반MB 야권연대를 통한 정권교체를 위해 투표장에서 야당에게 표를 몰아주는 길이다. 다른 하나의 길은 정리하고와 비정규직은 한계에 달한 자본주의가 유지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기에 이를 철폐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갈아엎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스스로 대안 정치세력이 되어 투쟁하는 길이다. 어느 길을 갈 것인가?

#### '희망'운동은 야권연대에 대해?

희망버스 과정에서 야권연대를 통해 나온 국회권고안을 돌아보자. 누구의 눈에도 그 권고안이 미진하고 100%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지만 그 이전의 술한 합의가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던 쓰라린 기억을 더 많이 갖고 있던 조직, 개인 어느 누구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이러한 사태진행이 처음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리 오래지 않은 과거에 쌍용자동차 8.6 합의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공장점거 투쟁의 마무리 국면에서 '똑같은' 경험을 한 바가 있는 데도 말이다.

왜? 첫째, 조직되지 않은 미조직 대중들의 자발성에만 철저히 기댔기 때문이다. 정작 투쟁주체들은 언제나 이들의 종속변수였다. 둘째, 그 대중들을 하나로 엮을 정치가 존재하지 않았다. 김진숙이라는 아이콘에 집중된 '열망'은 있었지만, 정리하고 철회라는 슬로건은 존재했지만 '어떻게?'라는 것에 대한 내용 논의는 부족했다. 셋째, 조직 노동자운동의 무능력과 좌파 정치조직의 실력이 그대

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숨 걸고 크레인에 오르고 공장을 무덤 삼겠다는 각오로 전개한 투쟁들이 야당이 개입하고 중재안이 나오면서 정크본드 수준의 어음 한 장 달랑 받고 정리당한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굴하지 않고 싸우고 있는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에게, 투쟁의 길에 처음 들어서는 노동자들에게 또 다른 길이 있음을 이제는 실물로 보여줘야 할 때다. 그래야만 더 이상 죽 썩서 개주는 꼴을 안 보게 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희망'을 넘어설 정치가 필요하다.

선거를 목전에 두면서 야권연대 지지하지는 정치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다.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어 정리하고제와 비정규직을 철폐하여 '희망'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현안 사업장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치가 좀 더 그럴듯하게 좀 더 노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희망광장에 모여 있는 노동자 대다수는 그들 스스로의 경험에 의해 정리하고와 비정규직을 만드는 데 앞장선 현재의 야당에 기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이미 민노당과 국참당의 무원칙한 야합에 반대하여 민노당을 탈당하고 야합 반대성명을 내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희망'운동이 민주노총 지도부가 올인하고 있는 야권연대와 다른 길을 걸음으로써 미조직 대중들의 자발적 참여와 눈 밖에 난 투쟁사업장 위주로 그 동력이 형성되었는데도 정작 동지들 사이에서 정치가 실종된 것이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노동자들, 정리하고와 비정규직의 폐해를 온몸으로 경험했기에 누구보다 더 절실하게 이의 철폐를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이를 위해서 어떤 정치를 갖고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진지한 토론을 거치지도 못했고, 정치적 대안세력에 대한 고민도 공유한 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정작 동지들 내부에서는 야권연대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알아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 같은 수준에서만 논의와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투쟁을 헌신적으로 하면 할수록 희망광장에는 더욱더 노동자계급의 정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희망광장에 모여 있는 노동자들은 청와대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왜 청와대로 달려가지 않느냐고 목청 높여 투쟁의지를 밝히는 노동자들이기에 그러하고 이미 공장점거, 1,000일을 훌쩍 넘기는 장기투쟁의 경험과 실천으로 야권연대에 앞장서 반대하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 야권연대에 맞서는 대안세력

민주통합당이 집권여당일 때 한미FTA나 강정해군기지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이 그 당시 뭘 잘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이다. 이명박 정권하에서도 민주당에 뒤통수를 한두 번 맞은 것이 아니다. 그 때 민노당은 무엇을 했고 뭐라고 했던가? 삶의 벼랑 끝에 서서 투쟁하다 분신한 노동자를 두고 비아냥댔던 것이 노무현 정권이다. 그리고 그런 정권의 핵심에서 전도사를 자처하던 유시민의 당과 통합한 뒤 전태일과 노무현이 만났다고 선언하는 통진당에게 표를 던지라는 말인가? 치매 환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들과 야권연대를 하자고 주장할 수 있으며, 철면피가 아니라면 어떻게 야권연대를 통해 창출해 낼 정권이 노동자들을 위해 정리하고제와 비정규직을 철폐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가?

'희망'운동이 이처럼 자명한 사실에 대해 침묵한다면 의도와 달리 '희망'운동조차 야권연대의 제단에 제물로 바쳐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목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면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거나 지나친 소심함이다. 이미 '희망'운동에는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데 한 치의 두려움도 없고 주저하지도 않을 동지들이 모여 있다. 또 이러한 '희망'운동의 정치에 동참하기에 함께하기 위해 모여드는 미조직 노동자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과 문제의식을 희망광장에 녹여내고, 청와대 포위투쟁에 앞장서고, 총파업 조직에 앞장서고 한다면 4월 11일에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각 정당들은 이러한 힘에 의해 좀 더 왼쪽으로 와 있거나 왼쪽에 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부상을 떨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욱 중요하게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정치세력이 어느덧 대안세력으로 우리들 앞에 한 발짝 더 다가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야권연대의 기만성과 폐해를 사실과 경험에 입각하여 앞장서 폭로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어젖혀야 할 우리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대안세력이 될 때만이 정리하고와 비정규직도 없는 노동자들의 세상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다.

자 이제 더 이상 두 갈래 길 앞에서 멈칫거릴 이유도 시간도 없다. 야권연대는 '정리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99%의 길이 결코 아님을 선언하고 노동자는 단지 표 찍는 기계가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세력임을 행동으로 보여주자.

혁명

창간준비 7호 (2012. 03. 24) 정세월간지

# 혁명

구독신청  
E-mail : wrp@jinbo.net  
전화번호 : (02) 6348-8318  
[ 값 : 5,000원 ]